

Radical Disciple IX.

설부른 단정뒤에 숨은 교만 (문화와 복음에 대하여)

1. 세상속의 그리스도인 - 세상문화를 바라보는 자세

(1) 자유주의 입장의 태도

문화 수용주의자의 태도, 물러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이다. 저 세상을 바라보고 무엇 때문에 바꾸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태도가 있을 수 있다. 교회가 해야할 일은 세상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태도이다.

(2) 극단주의 - 승리주의 태도

* 자유주의 : 해방신학, 일종의 막시즘과 같다.

* 보수주의 : 기독교가 권력을 획득해서 사회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어떤 주장이건 이것은 승리주의적 태도, 즉 문화를 변혁시키자는 주장이다. '팀 켈러'의 복음과 문화에 대한 강연을 보면 이와 같은 주장들은 성경이 말하고 복음이 말하는 바에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3) 제 3의 길

자유주의적, 극단적 승리주의 태도가 아닌 복음이 말하는 제3의 길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ㄱ) 율법주의적 태도 : 자신의 변화를 자신의 힘과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입장.

ㄴ) 방종주의적 태도 :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대로 좋다는 것이다.

ㄷ) 복음주의적 태도 :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은혜로 구원 받았다. 그와 동시에 구원받은 자는 변화된다는 태도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인하여 구원 받았지만,
참 믿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_ 마틴 루터*

*'복음은 문화의 변혁이나 문화로부터 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 참여해야 한다 (Engage culture) _ 밀로 스토프 볼프*

'문화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문화에 대한 양극단적 시각을 피하고 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무언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다.

2. 문화에 대한 이해

세상문화를 우리의 기준으로, 극단적 악함으로 단정짓는 이분법적 자세를 피해야 한다. 복음의 가치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절실히 필요하다.

(1) 교회는 세상속에 있다. 즉,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5: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성경은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을 세상속에서 언급한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비유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

- * **맛** : 탁월함 (소금을 통한 음식의 맛) 세상안에서 진짜 맛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진짜 탁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인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 * **유지** : 소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교회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2) 세상을 악하다고 단정짓는 사람에게 어떤 변혁도 있을 수 없다.

요한복음 3:16을 보라.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보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바로 그 사랑이 '은혜'이며 '은총'이다. 은혜와 은총은 상태와 상관없는 일방적인 사랑의 선포를 말한다. 초림주 예수님이 은혜의 주님이라는 것과,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을 향한 분별은 중요하나 '설부른 단정'을 통한 이분법적인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한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세상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종교인의 태도로 변화시켰다. 종교인은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라는 입장이다. 자기기준에 모든 것을 맞추라는 것은 오만한 태도이며, 교만한 태도이다. 이런 태도가 '십자군' 이라는 기형적 기독교를 만들었다(심판의 태도). 나의 설부른 단정과 판단이 얼마나 세상과 교회를 멀게 했는지를 자성해야 한다.

*** 베드로의 보자기 환상 - 문화에 대한 이해**

이방 문화에 대한 이해, 설부른 판단안에 있는 교만함과 문화적 우월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사도행전 10:14-15]

14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15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3) 일반은총과 특별은총

우리는 특별은총으로 구원받은 존재이다. 일반은총의 주님의 은혜가 모든 만물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주님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에서도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중요한 태도이다. 예를들어 우리가 빵을 구할 때 하나님은 농부의 수고와, 제빵사의 기술과, 빵을 구울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사람들의 기술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빵을 공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4) 세상문화속의 영향력 - 존중의 태도 (팀 켈러)

*** 빌레몬서에 대한 이해 (빌레몬서 1:10-18)**

그 당시 노예제도 안에서 바울은 노예 오네시모의 문제를 해결한다. 복음의 가치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존중의 태도)가 빌레몬의 가치관을 변화시킨다.

ㄱ) 빌레몬을 존중하는 바울의 태도

[빌레몬서 1:14]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역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ㄴ) 노예 오네시모의 가치 (복음으로 문화를 해석)

[빌레몬서 1:16-17]

16 이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 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라

17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 “**종 이상으로 곧 사랑 받는 형제로 둘 자라**”

: 그 제도 안에서 복음으로 레디컬한 영향력을 준다. 이것이 바로 세상 문화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이다. 복음안에 있는 겸손과 존중의 가치이다. 문화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려라. 복음안에 있는 겸손과 존중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성숙해져야 한다.

3.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 (문화의 영향력 / 고후 10:3-5절) _ 다음주